

2013년, 계사년 새해가 밝았다 육계 사육농가 및 계열업체 경영 안정이 최우선 과제

편집부

2013년 계사년(癸巳年) 새해가 밝았다.

희망찬 새해를 시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닭고기 업계는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이다.

국내외 경기 불황의 영향으로 전 방위적인 축산물 소비위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료 가격, 원유가격의 폭등이 더해져 전반적인 축산업 경영여건은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 특히 한우, 한돈 등은 당국의 정책적인 개입으로 조금씩이나마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닭고기 산업의 경우 속수무책으로 현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현재 육계 kg당 생산비가 1,800원대를 상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협산지가격은 1,400원대 수준이라고 하나 바닥시세는 1,100원대 수준으로 전년대비 30% 이상 떨어진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며, 전체 사육마리수가 7,290만 마리에 달하는 등 닭고기업체가 최악의 상황을 향해 치달리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종계(GPS, PS) 사육수수가 적정수수의 30% 이상 과잉공급이 예상되고 있는 반면, 소비는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어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적자누적으로 육계 계열화사업자의 도산((주)매산씨엔에프 2012년 12월 24일 최종 부도)은 물론이고 그 피해가 사육농가에 까지 이르러 국내 닭고기 산업 자체가 붕괴되는 심각한 상황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회에서는 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육농가 및 계열업체의 경영안정자금 지원, 종계 유통조정 명령, 잉여물량의 비축 등이 시급히 이루어져 시장가격 및 공급물량 안정화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판단, 농림수산식품부에 계육산업 불황에 따른 사육농가 및 계열업체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한편 올해 본회에서는 현재 우리 계육업계에 닥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축산계열화사업법에 의한 닭고기 및 종축의 생산조정, 불합리한 가격체계의 개선, 계열주체 상호간 및 계열주체와 계열농가와와의 신뢰구축, 자조금을 통한 닭고기 가치 홍보에 중점 목표를 두고, 이러한 목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